

“천일기도 원력으로 미래불교 희망 싹 틔울것”

데스크초대석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500일, 제 개인적으로는 일생동안 이토록 한 곳에서 오래 머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곁을 떠나고 싶어서, 저 산을 떠돌았는데 봉은사와 무슨 깊은 인연이 있어 주지 소임을 맡고 천일기도까지 임재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출가해 지금까지 선방에 다니면서 30년 넘게 정진해 왔지만 지금처럼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는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루 세 번 법당에 올라가 일천배를 올리는 동안 어느 날은 발이 부어 걸음을 내 내기도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몸살에 걸려 도무지 절을 할 수 없어 그냥 불전에 앉아서 모으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한 날도 있었습니다. 큰 절 주지가 천일기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 세 번 하는 것은 무리라며 처음부터 말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봉은사를 바로 세우고 한국불교의 중심도량으로 만드는 일이 작은 서원이 아닌데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마음을 모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천일기도에 임재한 것입니다. 내 한 몸 먼저 부처님 전에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있겠는가 싶어 시작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절한 것 같습니다.”

2006년 12월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공부가 된다는 신념으로 천일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4월 17일 500일을 맞았다. 명진 스님의 기도에는 주변 스님들과 500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명진 스님은 기도 500일을 맞아 동참한 불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간의 정진을 돌아보고 나머지 시간을 더욱 알뜰하게 정진하자는 당부의 편지. 불자들에게 “작은 틈새도 온힘을 다해 파기에 그 빛이 아름답고 그 향기가 그윽하듯 저의 천일기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한 명진 스님을 만났다.



-500일이란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습니까?

빨리 흘렀어요. 시간에 얽매어 있지 않으니 빠르고 느림도 없었지만, 지난 시간은 참으로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신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기에 항상 힘이 납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절반까지 온 시간을 나의 원력이 지탱해 주었다면 앞으로의 500일은 신도님들의 성원으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운동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지만 봉은사 천일기도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는데, 도량이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 입재 동기와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예불 아침공양 도량청소를 마치고 나면 좌복 위에 앉거나 책을 보고 사시예불을 하고 점심공양 후에는 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저녁예불과 정진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생활입니다. 늘 이 자리(다래현)에 있으니 마음이 안정되고 몸도 건강합니다. 도량도 바뀌고 있지만 나 역시 많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주지 임명 받기 직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 차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대형

은 이 말이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수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자리가 밝아지면 그 주변 사람에게도 좋거든요. 수행을 통해 모두가 한 명 한 명의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늘 종단 개혁의 현장에 있었습니니다. 1994년 종단개혁의 방향은 제도를 바꾸어서 한 사람의 독재를 막고 공의에 의한 종단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원장의 권한을 대폭 중앙총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중앙총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총무원장’이 생겼습니다. 종회의 원들이 작은 총무원장이 되는 것을 보며 더 많은 조조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명의 조조’를 살려줬던 재갈공명의 지혜를 생각했습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종단이 바뀌는 것입니다. 스님을 개개인이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바꾸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방송사가 스님들의 고급 승용차 등 화려로운 생활과 문화재 관료제 징수 부분에 대한 기획물을 방영했습니다.

절 집안이나 정치판을 비롯한 세속에서 부끄러

종단 나쁜 관행 바꾸려면 개개인이 먼저 변화해야

신행공간 절대 부족...봉은사 법회공간 불사 추진

사고였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다치지 않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제 빛 같으라고 기회를 주신 거 생각하며 주지직을 맡았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20여 년 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신도님들에게도 세상을 향해서도 새로운 변화로 봉은사의 진정한 가치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봉은사를 새롭게 다지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사부대중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새로운 봉은사는 탄생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생에 닦은 복이 있는지 천일기도 입재를 했고 잘 진행되어 중간까지 왔습니다. 신도님들과 함께 하며 진정 나를 공부하게 하는 힘은 바로 신도님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침에 도량청소를 하는데, 비질을 하는 내 손을 잡으며 하염없이 우는 보살님을 통해 이 기도가 얼마나 뜻 깊은 불사인가를 느꼈고 예불 때마다 동참하는 신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봅니다. 신도님들이 바로 호법신장이라서 나는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하하.

-기도를 하시면서 특별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불교는 제대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한국불교는 도시화 현대화로 진행되는 가운데 수행의 가치를 잃고 있었습니니다. 우리가 ‘자리야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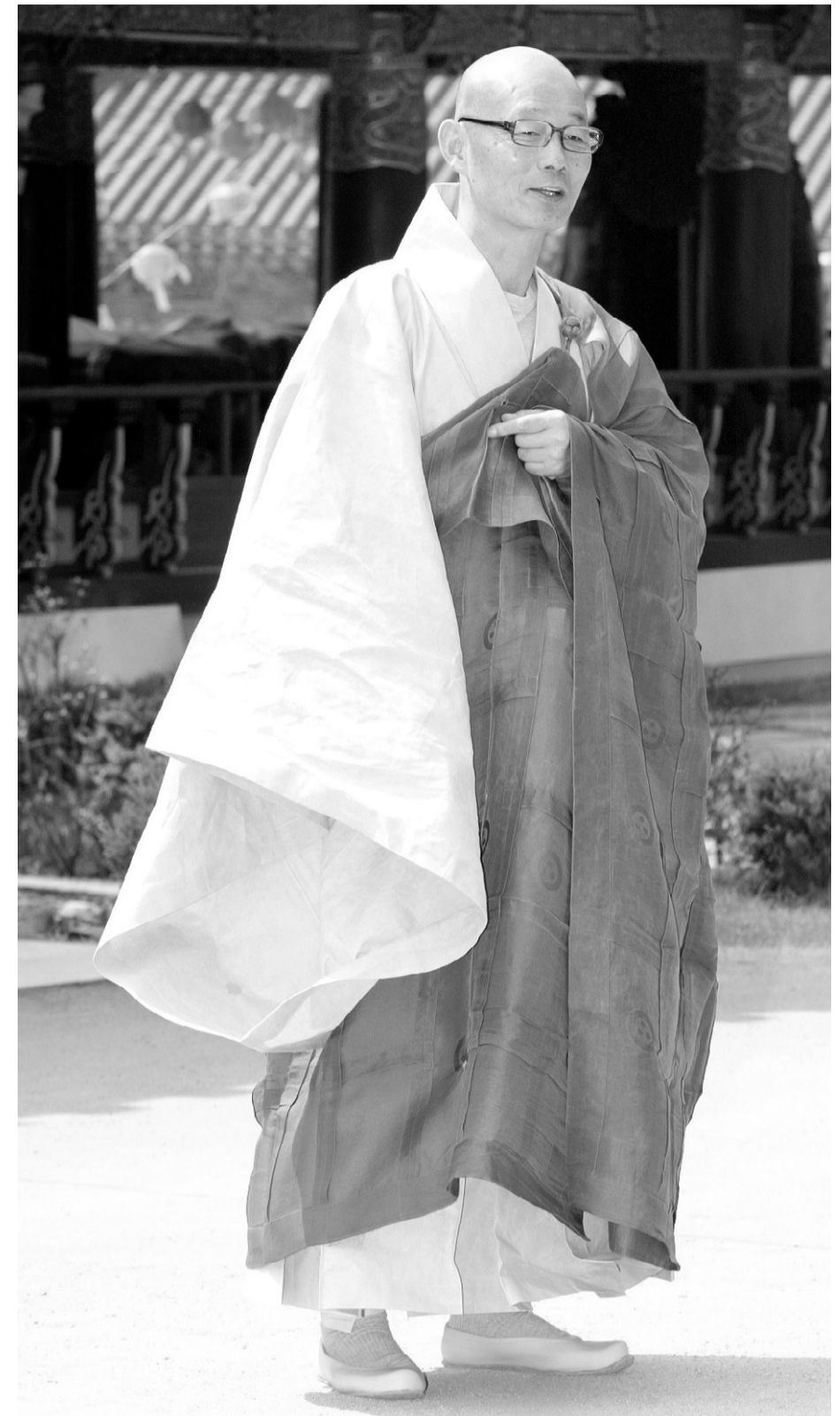
움과 미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안한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이 경제논리에 묻혀버리면 그 사회는 절대 건 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부른 돼지 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허물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네 삶에 부끄러운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북관계가 많이 경색되는 분위기입니다.

대북관계는 역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절인연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만 볼 것이 아니라 북측의 여러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시절 인연이 맞으면 활기차게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지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봉은사 불사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압니다.

신행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강남에서 유일한 문화기반이 봉은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봉은사는 한국불교의 구심점이었거든요. 법회공간 확보를 위해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공원지역이라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어요. 법제정을 추진하면서



불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사는 종단과 지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정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봉은사의 천일기도가 도심 사찰의 수행과 운영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종단이나 사람이나 좋지 않은 관행을 빨리 벗어 나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불교의 희망이 싹 틔웁니다. 승가와 재가가 함께 수행하고 서로 신뢰하는 데서 불교의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겁니다.

종단이나 사람이나 좋지 않은 관행을 빨리 벗어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원 기자

불자 정보 676호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양 ● 종교부지 약 260평 ● 법당 22평(현 불사중) 요사채 32평(현대식) 창고, 산신각 ● 가액은 원하는 금액에 양도하고자 함 010-3553-7897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동구 ● 법당, 방2, 40평, 삼존불 기타 시설 완비 ● 지하철, 정류장 5분거리 체육공원 인접 ● 가액: 전화상담 010-6236-5557 053)961-0501	사찰 터 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서포면 반야리 ● 평수: 3200평 ● 대지: 20평 ● 가액: 6천만원 016-9707-3108	사찰 안내 ● 경북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 행산 생활주거지는 포함합니다 ● 대지: 406평 ●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 심야에어컨, 심야보일러 완벽하게 설치되어있음 ● 가액: 3억 2천만원 011-542-0982 054)762-7389	포교당 안내 ● 위치: 경북 김천 ● 2층 건물 2층 43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협의 후 결정 010-8622-1285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금정 전자공고 정문 앞 ● 실평: 24평 (법당 13평, 요사채 11평) ● 삼존불, 공양간 도구, 기타 ● 보증금 5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차후 결정 011-481-1227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광진구 화양동 ● 3층 건물중 2층, 3층(각 24평) 2층 요사채, 3층 법당 ●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5천만원 (보증금, 시설비 포함) 010-8028-0660	사찰 안내 ● 위치: 밀양 무안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대 앞 대로변) ● 법당 42평 (5층 건물중 2층) ● 삼존불, 108호신불 방1, 주방, 샤워실(비품일체 양도) ● 가액: 시설비 1,2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급한 사정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10-5013-2526	포교당 터(임법당) 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동강변 ● 대지 232평, 신축건물 60평(3년) ●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변경관이 사찰로 운영합이 좋을 듯 싶고 포교당으로도 적합한 ● 심야전기시설, 주차시설 완비 ● 가액: 현 시가액에 맞지않은 3억2천만원에 인연맞는 분께 양도하려함 011-803-74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앞 주택지) ● 4층 건물의 3,4층 전세(120평) ● 시설 최고, 진신사리 불안 ● * 30여 년간 포교에만 전념해 왔으나, 건강상 급 안내 합니다. ● 가액: 총 4억 (절충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바랍니다. 02)338-05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양산시 (부산에서 20분 거리) ● 평수: 총 54평 ● 법당, 공양실, 방3 ● 부처님, 탕화 ● 보증금 2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없음 010-2599-6020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칠곡 (구미시에서 5분거리) 인근에 신도시 개발중 ● 평수: 740평 ● 대웅전,삼성각, 요사채, 종무소 ● 가액: 4억 5천 ● 실사용면적 1,000여평 011-9598-3399
	포교원 운영하실분(급) ● 위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포교원 최적지이며 주택, 상가 밀집지역, 현 시설되어 있으며 운영하던 곳 ● 보증금 1천만원, 월45만원(양도도 가능) 시설비 협의 후 절충 ●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 011-279-3538	사찰 안내 ●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청수장 (국립공원 주차장 내) ● 임법당 50평 주차장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 3천 5백만원 (전세, 시설비 포함) 010-4532-7920	(급)사찰안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 약 700평 ● 허가면적: 약 550평 ● 건물: 요사채, 산신각 약 100평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찰로서 스님의 건강악화로 급하게 안내 하오니 인연이 맺는대로 양도함 ● 현재 공사비 약 4억 소요 055)572-0405 011-9850-8208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내 천은당 한의원과 같이 있는 한옥 1채 ● 평수: 약 25평 ● 부처님 모셔져 있음, 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2)967-4192	포교당 안내 ● 위치: 창원시 중앙동 ● 평수: 법당 15평(실 사용 평수) ● 방, 주방 ● 지장보살 목불, 천수천안, 산신, 나한존자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00만원 010-5898-0408 055)266-5847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영등포역 5분 거리 (영등포포터라 변화가 위치) ● 법당, 주방 등 살림가능 5층 건물중 4.5층 사용(38평) ● 삼존불, 산신전, 지장전 ●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4천2백만원 ● 유동인구가 많아 역화스님, 보살님 최적 010-4474-4446	사찰 안내 ● 위치: 충북 영동 ● 평수: 21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실내는 아파트식) ● 과실수 끌고루 있음 돌담 ● 심야전기, 에어컨 완비 ● 가액: 1억3천만원 011-491-2347